

천단공원



환구단 남쪽에서 북쪽을 본 조감도다. 상단에 천안문 광장의 건물 이 보인다. 천단의 상단부터 기년전, 기년문, 단비교, 황궁우, 환구 단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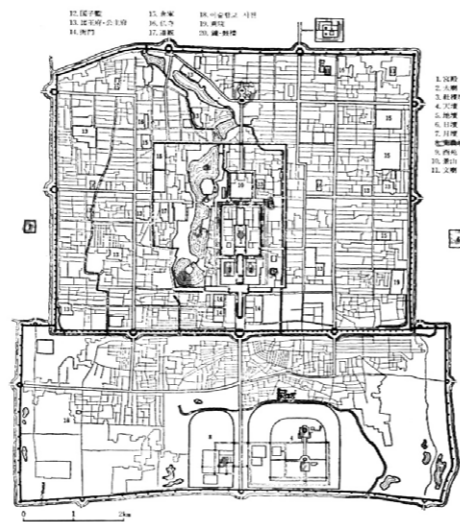
1. 북경도성

이번에는 중국 수도 북경을 구경해 보자. 자금성, 천안문 광장, 천단공원을 보 면 중국의 옛날과 오늘을 대개 이해할 수 있다. 천안문 광장은 중국 역사의 분 기점이 될 때마다 여기와 관련되는 중국의 산 역사의 현장이며 자금성은 명나 라, 청나라 황제가 거처하던 곳이고 천단공원은 천자(天子)가 천제(天帝)에게 제사지내는 곳이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북경은 원(몽고) 나라 수도인 대도였다. 1368년 주원장(朱元璋)이 남경에서 명나라를 세우고 원 나라를 평정했다 해서 이름을 북평이라 했다. 제 3대 영락제 는 몽고의 잔존세력 을 소탕하고 북쪽 변 방을 다스리기 위해 북평으로 수도를 옮

겼다. 민간, 군인 30만을 동원하여 14년 만에 웅장한 궁궐과 도성을 재건하여 1420년에 천도하고 이름을 북경이라 했다. 그 때 당초 도성의 북쪽성곽을 남쪽으로 2.5km 이동하고 남쪽성곽도 0.5km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오늘의 내성(동서 6.65km, 남북 5.35km)이다. 남쪽성벽에는 3개의 대문을 두었고 나머지는 각각 2개의 대문을 두었다.

자금성은 원 시대의 궁성자리이므로 도성 중앙에 위치시켰다. 그러다가 1553년 에는 자금성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내성 남쪽에 동서 7.95km, 남북 3.1km



명청시대 북경도성 배치도

이 봉규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시공기술사
여의도 저이 주상복합 신축공사 감리단장

의 외성을 증축하였다. 따라서 북경도성은 내성과 외성이凸자 형태가 되었다. 내성 안에 황성, 그 안에 자금성이 있었다. 황성은 동서 2.5km, 남북 2.75km 장방형이며 성곽 네 방향에 대문이 있는데 남쪽 가운데 것이 천안문이다. 황성에는 자금성, 궁원, 묘사, 사찰, 관아 등이 있었고 외성 남쪽에 천단과 선농단이 있으며 그 사이에 일반 백성들이 살았다.

천단공원을 가려면 천안문에서 남쪽으로 전루를 지나고 전문대가(前門大家) 길을 2~3km 내려와야 한다. 거기에 있는 외성(外城)문이 영정문이다. 외성에서 왼쪽이 천단공원이고 오른 쪽이 선농단이다. 천단공원은 동서남북에 출입구가 하나씩 있다. 황제가 제례 일 전 제궁에 들기 위해서는 서문으로 들었는데 요사이 일반 관광객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한데 필자는 영정문 밖으로 나가서 남문으로 들어갔다. 바로 환구단의 사각담장과 영성문이 보인다. 영성문은 환구단 구역의 출입문이다. 담장 밖은 키 큰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우거져 깊은 산장에 들어온 느낌이다. 영성문을 지나면 1.8m의 환형 담장이 사각담장과 꼭 같이 환구단을 둘러싸고 있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지구는 모나고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얀 백 대리석으로 된 영성문은 내의 담장 사방에 3개씩 있어 모두 24개다. 운문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은 문 옆에 상운(祥雲)을 조각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2. 환구단



환구단 뒤에 황궁우가 보인다. 동쪽 바깥으로 신주와 제성정이 멀리 보인다.

그 안을 보니 높고(5m) 거대한 3층 노대(露臺), 환구단(環丘壇)이 앉았는데 둥근 백 대리석이다. 매년 동짓날이 되면 황제가 여기에 친림하여 황천상제(皇天上帝)에게 그 해의 오곡 수확과 나라의 번성함을 보고하고 내년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했다. 노대를 둥글게 한 것은 천체가 둥글다고 생각해서 하늘을 상징한 것이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도 노천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음 직하다.



환구단 기단

남쪽계단으로 3층 노대에 올라보니 사방이 확 띄어 전망이 좋다. 노대 가운데에 서서 한없이 펼쳐진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늘과 상통하는 느낌을 준다.



환구단 대리석 난간과 영성문

상층 노대 직경이 3×3=9丈(3.33m) 즉 약 30m다. 중층 노대는 3×5=15丈 즉 50m, 하층 노대는 3×7=21丈 즉 70m다. 노대로 올라가는 계단도 사방에 하나씩이고 층마다 난간주(欄干柱)를 세웠는데 상층에는 용, 중층엔 봉황, 하층엔 상운을 조각했다. 이 난간주의 수를 보면 상층이 72개, 중층이 108개, 하층이 180개다. 이것은 9의 배수다. 9는 중국 사람들이 고귀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대길의 숫자로 인식한다. 그래서 천제는 구중천(九重天)에 살고 천자는 구중궁궐에 산다고 여긴다. 고대 중국 건축가들은 궁전건축이나 황제의 기념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런 숫자를 도입했다. 이런 숫자놀음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대 바닥도 그렇다. 상층 노대 가운데의 둥근 대리석 온장을 천심(天心)석이라 하는데 천심석 주위로 부채형 대리석 9장을 깔고 그런 방법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9줄 깔았다. 천심석 1장 주위로 똑 같은 크기와 모

양으로 한 장의 파장도 없이 9장, 18장, 27장 ...81장을 깔았다. 이 스킴(Scheme)은 중층 하층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모두 3402개가 깔렸다. 대리석 바닥은 처음부터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같고 닦았 겠지만 500여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환구단 천심석

천심석에 서서 천자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천신께 기원하면 그대로 음향이 울림으로 내려온다. 황제가 여기서 제례를 올리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면 천제의 목소리로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정말로 그렇다면 제례는 엄숙하고 천자가 하늘의 비호아래 황실은 영원할 것이라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올라서 하늘에 대고 소원을 읊었다. 천자가 아닌 것이 엉뚱한 짓거리를 했으니 하늘의 응답이 가당키나 하랴!

3. 황궁우

거기서 북쪽을 보면 주 건물들이 한 줄로 늘어섰다. 북쪽 영성문을 나서면 황궁우다. 황제가 동짓날 환구단에서 제례를 올릴 때 천신과 황제 조상들의 위패를 초대하는데 황궁우는 그 위패들을 평시에 모셔놓은 집이다. 일명 위패 침궁이다. 이 건물은 8개 기둥으로 된 원형 단층집이다. 단층이긴 하지만 원추형의 짙은 청유리 기와 지붕, 적색 외벽, 동근 남색 보, 동근 백 대리석 기단, 난간과 계단 배치 등이 기년전과 비슷하다. 우산모양의 지붕이 특이하다. 지금도 중국 남쪽 지방이나 월남, 라오스 등지에 가면 햇빛을 가리기 위해 평상시에도 저런 모양의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그걸 건축화한 게 아닐까 했다. 지붕 꼭대기에 황금색 피니 알을 두었는데 이슬람식과 달리 마치 몽툰한 상투 같기도 하고 좀

천한 생각인지 모르나 솔뚜껍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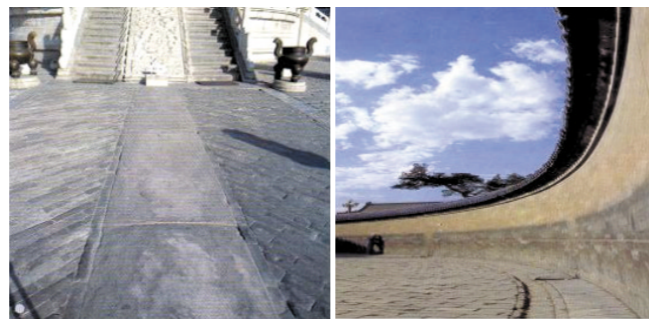


황궁우

바닥 직경은 15.6m이고 높이는 19.8m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목조 집인데 수평보 없이 지붕을 만들었다. 기둥에서 경사재를 연장시켜 공포(브라켓트)로 보강하고 지붕 가운데서 조립했다. 그리고는 널판재로 지붕 곡면을 만들고 달대를 내려 오목한 천장을 만들었다. 천장은 환재(環材)로 된 동심원이 점점 작아져 꼭대기에서는 움푹진 환형이 되었다. 거기에는 감청색 바탕에 돌을 새김으로 용을 부조해서 금박을 입혔다. 이 금용부조가 사재(斜材)와 환재가 이룬 여백을 채우는 장식 모티프가 되었다.

황궁우 내실 정 북쪽에 황천상제 위패가 그리고 양쪽에 황제 조상들의 위패가 자리했다. 제례일 전날 황제가 제궁에서 나와 각 위패 앞에 무릎 꿇고 분향하고 축문을 낭독한 후 정식으로 환구단 제례의식에 초청한다.

황궁우 밖을 나오면 회음벽이 있다. 황궁우와 두 별채를 둘러싼 동근 지붕담장이다. 높이 3.72m, 직경 61.5m, 둘레 193m의 전돌로 지어진 이 담장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다. 매우 잘 다듬어진 벽면이라 매끈하고 곡면도 비교적 정확하여 벽 한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를 그 반대쪽에서 뚜렷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회음 벽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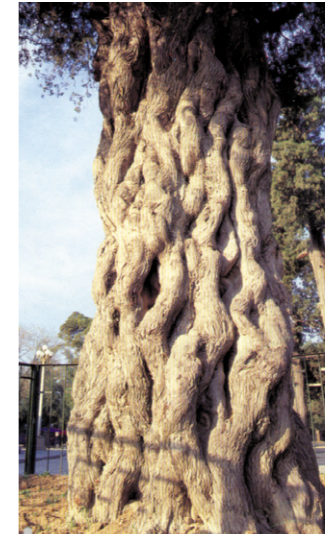
삼음석

그리고 삼음석이란 것이 있다. 중앙의 황제용 계단 바로 앞에 있는 어도 대리석 3장을 말한다. 이들 돌에 서서 회음 벽을 향하여 손뼉

을 치면 메아리가 다르게 들린다. 계단 제일 가까운 첫째 돌에서는 메아리가 한번 울리고 두 번째에서는 두 번, 세째 돌에서는 세 번 울린다. 이것은 돌 위치와 회음 벽과의 거리가 달라 음 반향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미스테리는 '지상의 조그마한 속삭임도 하늘에서는 모두 들을 수 있다'고 전해져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늘을 경외해야한다'고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 고대 건축가들의 장난이 심했다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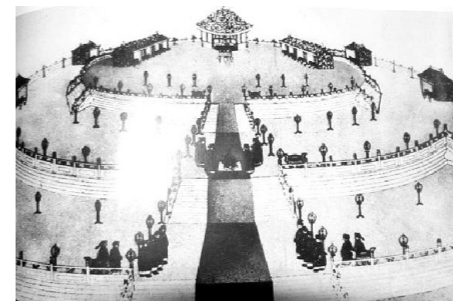
사이프레스 나무 한 그루

황궁우 회음벽 서쪽 바깥에 500년(영락제 때 심었다) 이 나 되는 사이프레스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등치는 구룡이 용트림하는 것처럼 꼬여 붙어 위로 솟아 있고 아직까지 나뭇잎이 푸르다. 천년 넘은 올리브 나무도 있다지만 정말 한 오백년을 살았더니 대단하다.



사이프레스 나무 한 그루

그렇다면 황제가 환구단에서의 제례의식 실황은 어떠했을 까? 이에 관하여 설명해 줄 그림이 하나 있다. 황제사천도(祀天圖)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천심석에 황천상제 위패, 그 양쪽(동서)에 황제 조상 위패를 놓았다. 그리고 한층 내려서 중단에 7신위를 남쪽 계단 양쪽에 배치했다. 동쪽에 일월성신, 서쪽에 운우풍뢰 신이다. 그리고 각 위패 앞에 놓인 제단에는 온갖 제물이 가득 놓였다. 그리고 하단 양측엔 60여명의 제약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제례 시각이 되면 제궁의 종루에서 태화종이 은은하게 울리기 시작한다. 황제가 환구단에 들어서기까지 종소리가 계속된다. 황제가 입장해 제례가 시작되면 종소리는 그치고 제례악이 울려 퍼진다. 이때는 번자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망등에선 불이 커진다. 천도(天桃)목을 태우면 향내가 좋으면서 연기만 자욱해 장내는 참으



황제 사천도

로 엄숙한 분위기가 된다.

자 이제 기년전으로 갈 차례다. 황궁우 북쪽 문을 나서면 기년전으로 연결되는 단비교다. 나와서 보니 천단을 황궁우 뒤 북쪽담장을 이용해 남북 두 구역으로 나누었다. 즉 남쪽을 환구단, 북쪽을 기년전 구역으로 말이다.

단비교는 길이 360m, 폭 29.4m인데 황궁우 쪽에선 지상 약 1m이고 기년전 쪽에서는 약 4m 높다. 이렇게 1:120의 경사면을 따라 걸어보니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점점 올라가는 기분이다. 황제가 제궁을 나와 제사를 모시러 기년전에 들어갈 때 위로 점점 올라 하늘에 닿는 기분을 느끼게 함이다.

가운데 길이 신도(神道)라고 천제신령이 다니는 길이며 왼쪽 길은 황제가 다니는 어도, 오른쪽의 왕도는 광공 대신의 길이다.

단비교 중간에 구복대라는 것이 있다. 다리에서 약간 비껴서 오른쪽에 약 150㎡ 되는 넓은 사각 플랫폼이다. 환구단 남쪽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땐 그냥 지나쳤다. 황제가 여기에서 제례복으로 갈아입는다. 단비 교엔 난간이 없는데 구복대에만 있는 것은 아마도 옷 갈아입는 동안 황제 일행의 안전을 고려했음이다.

4. 기년전 祈年殿



기년전 전경
동근 3층 기단 위에 3층 동근 기년전, 그리고 배전건물과 기년문. 기년전 뒤로 황건전과 담장 북문이, 오른쪽엔 신주와 제성정이 보인다.

담장문(녹색 지붕, 사방 4개소가 있다.)을 들어서면 190m 길이, 160m 폭의 넓은 장방형 기년전 역내가 전개된다. 여기는 4m 높이의 기와담장으로 둘러싸였는데 대리석으로 포장된 바닥도 용비교처럼 지표에서 4m 정도 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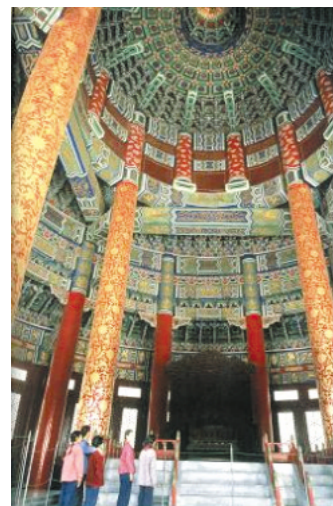
기년문을 지난다. 기년문은 기년전의 정문이다. 왕이 바깥에 따라 정전(正殿)이름이 바뀌고 따라서 문 이름도 대사문, 대정문, 기년문으로 바뀌었다. 천문문 이름에 걸맞게 5칸 집이다. 가운데 칸은 황제가 드나드는 궁문인데 그 위에 걸린 “祈年門”이라는 편액이 근사하다. 명필이다. 옛날부터 중국에선 유명한 기념건물의 정면에 한자로 건물 이름을 써 걸었다. 오늘날에 지금성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렇다. 광화문이나 동대문, 남대문 등 유명 기념물에 명사들이 건물 이름을 한자나 한글로 썼다. 한데 글씨가 별로인 정치가가 권세의 힘으로 둔필을 남겼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기년전 기단 좌우에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9칸 건물의 동서배전은 일월(日月)성신(星辰), 운우(雲雨) 풍뢰(風雷)의 신위를 모셨다.



기년전

기년전은 기곡단(祈穀壇)이라는 별칭처럼 한 해 농사가 잘 되라고 봄에 황제가 하늘에 제례를 올리는 신성한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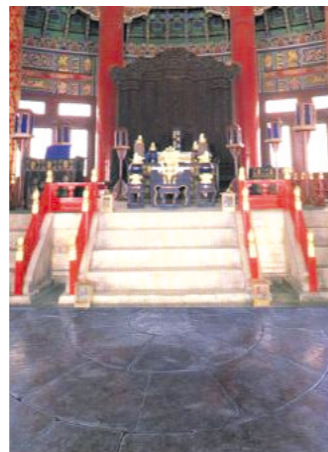
기년전 천장과 기둥

명대 영락 1421년에 장방형의 대사전이 처음 건립되었다. 1545년 가정 황제가 이를 헐고 3층 원전에 청황록 3색 유리 기와지붕을 올리고 이름도 대정전으로 바꾸었다. 1751년 건륭황제(청대)가 이 건물을 수리하면서 기와를 황금색으로 바꾸고 이름도 기년전으로 개칭했다. 그러다 1889년 화재로 복원될 때 오늘과 같이 청록기와로 바뀌었다.

기단은 층마다 점점 줄어드는 동심원을 이루었으며 원형 처마도 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 이것 또한 하늘에 오르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6m 높이의 3층 기단 위에서 있는 기년전의 1층 직경이 24.2m이며, 지붕까지 높이는 32m다. 지붕은 우산모양의 원뿔이고 처마는 청록색 유리기와이며 기둥은 적색이고 기단은 백 대리석, 이와 같이 색깔로 경계를 확실히 구별했다. 층마다 난간 주와 배수구도 백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조각했다.

기년전 지붕을 받치는 4천주는 4계절을, 중층을 받치는 12고주는 12개월을, 아래층을 받치는 평주 12개는 하루 12시진(時辰)을, 다시 고주와 평주를 합친 24개 기둥은 1년의 24절기를 상징한다. 이 건물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완전 목구조다. 수평보를 쓰지 않고 기둥에 경사재를 연결시켜 지붕 중앙에서 조립하고 공포(栱包)로 경사재를 받쳤다. 경사재에 널판재를 등글게 연결시켜 환을 만들면서 한 겹씩 한 겹씩 쌓아 지붕곡선을 이루고 달대를 내려 천장을 만들었다. 오목하게 만든 천장 중심부에 작은 돔을 만들고 그 중심에 황금색으로 용을 조각했으며 경사재와 동심원을 이룬 환(ring)이 만드는 빈 공간에는 모두 상운(祥雲)을 조각했다. 온 천장에는 상스러운 구름인데 천장 제일 높은 곳에서 용이 꿈틀거리고 있다. 참 멋진 상상이다.



수미좌와 용봉석

그 황용이 있는 작은 돔 천장 바로 아래에 자색(紫色)의 석제 수미(須彌)좌가 자리했다. 용봉 병풍을 배경으로 한 보좌(寶座)다. 제례 때 거기에 천황 상제의 신패를 모시며 이 신패 양쪽으로 황제 열성조의 위패를 모신다. 수미좌에서 계단을 내려오면 바로 바닥에 동근 용봉(龍鳳)석이 있다. 황제가 여기에 서서 절을 한다. 바다 돌은 이 돌 주위로 동심원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돌 표면에 용과 봉 무늬가 찍혀 있다. 사람이 조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돌엔 봉황새 무늬만 있었는데 천장에 새겨 놓은 황용이 여기에 내려와 봉황과 자주 놀게 되었다. 그러다 우연히 가정황제가 부복하여 절할 때 미처 날아가지 못하고 놀려서 돌에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한다.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다. 기단 주위로 백색 대리석 난간 주 조각이 일품이다. 여기에도 상층의 난간 주엔 용을,

중층에는 봉황을, 하단에는 상운을 조각했다. 용봉과 하늘을 휘감아 오르는 상운은 모두 대길(大吉) 대리(大利)를 의미한다. 기단의 남쪽 계단에 있는 4.2m 길이, 2.2m 폭의 큰 전전석조(殿前石雕)에도 용과 봉황, 그리고 상운을 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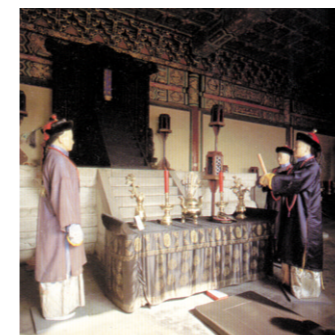
난간 주

전전석조

5. 황건전



황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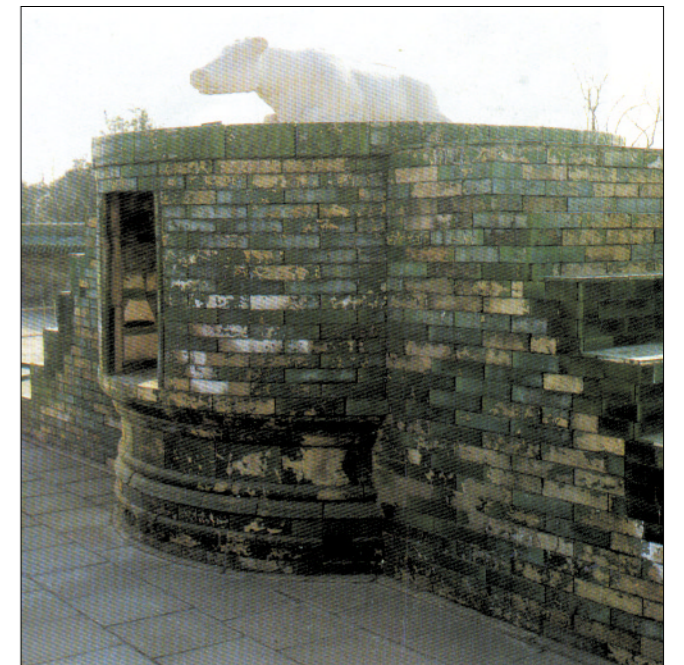
황건전 내부

기년전 뒤에 있는 황건전은 황제가 봄 제례를 올릴 때 모시는 황천상제, 황제 열성조의 위패를 평소에 모셔 놓는 곳이다. 환구단에서 황궁우의 기능과 같다. 5칸 우진각 지붕으로 3줄의 백 대리석 계단과 난간이 있다. 정문 위에 황건전(皇乾殿)이라

쓴 편액은 가정황제의 친필이다.

황제가 제사 날 하루 전에 도착하여 각 위패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배례하며 축문을 읽으면서 다음날 제례에 정식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제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궁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천제를 지낼 때 이들 신위를 기년전에 초청한다. 지금 여기에 들면 황제가 향을 피우고 부복하는 밀랍상을 만들어 놓았다.

여기를 나와 기년전 주위를 한바퀴 돌아보았다. 단순하면서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전건축의 백미라 아니할 수 없다. 전전석조가 있는 남쪽에 번자(火)가 보인다. 환구단에서도 보았지만 번자(火)는 전돌로 된 둥근 큰 화로다. 그 위에는 하얀 희생소 조각상이 앉아 있다. 제사 때는 망등에 청사초롱 불 밝히고 여기에 불을 피워 연기를 내서 하늘에 소식을 전한다. 이것 또한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효과를 준다.



동쪽을 쳐다보면 동쪽 숲 속에 신주(神廚)가 있다. 나무들에 가려져 잘 안보이지만 거기서 제물을 요리했다. 제성정은 한참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소, 양, 사슴, 돼지, 토끼 등을 잡아 장량을 통해 신주로 옮겨 거기에 있는 우물(甘泉井)물을 사용하여 제물을 요리했다. 옛날에는 이 우물은 하늘에 통해 있어 물이 은하수로부터 흘러든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황제는 이를 천수라 하여 이 물로 목욕재계했다. 이 두 건물은 W자 모양의 긴 장량이 연결하고 있다. 장량 동남 쪽 넓은 공지에 둥글 뭉실하고 이리 저리 골이 파인 돌 7개가 띄엄띄엄 놓여 있다. 복두칠성이 여기에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으면서 이를 칠성석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 가정 황제가 기년전 동남방에 넓은 공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황위에 좋지 않다는 도사의 풍수를 믿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돌 7개를 조각하여 이 자리에 놓아 둔 것이다. 기년전 서쪽 넓은 공원에 짙은 숲들이 우거져 있고 띄엄띄엄 정자들이 세워져 있다. 백화정, 선면정, 쌍화만수정, 방승정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면정

백화정



방승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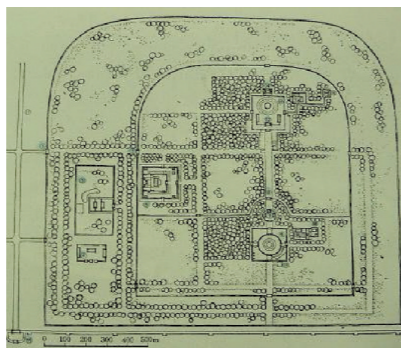


쌍화만수정

기년전에서 나와 서쪽으로 가면 제법 높은 언덕이 있다. 제궁 주위 해자를 파서 생긴 흙으로 쌓았다. 여기에 올라가면 천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그 옆에 제궁, 기년전과 부속시설, 황궁우와 환구단이다.

오늘날 천단은 폭 1.7km, 길이 1.6km, 면적 280헥타르. 담장은 바깥 길이 6.416km, 안쪽 3.292km로 회자 모양, 2중이다. 담장 북쪽모서리를 원형으로 하고 남쪽은 각형으로 만들어서 천원지방(天圓地方)을 나타내었으며 사방에 출입문을 하나씩 두고 주위에 상록수를 뺨뺨이 심어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내(內) 담장으로 천단 구역을 돌로 나뉘 북쪽은 기년전과 부속건물(봄 제례용)을, 남쪽은 환구단과 부속건물(겨울 제례용)을 배치했는데 주 건물은 남북 일직선이다.

6. 제궁(齋宮)



자 이제 언덕 옆에 있는 제궁을 둘러보고 천단 답사를 마치고 자 한다. 황제가 제례전날 묵는 궁전이 제궁이고 거기서 담장 넘어 보이는 작은 두 건물은 제약사가 거쳐하는 신락서와

제사용 가축을 기르는 희생소다.

제궁도 담장이 몇 겹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대문도 정문과 측문 합해서 6개다. 담장 밖의 해자 위에 걸친 백옥교를 지나 동궁 문을 들어서면 정원과 2층 종루가 있고 또 중문을 지나면 제궁 정전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중문을 지나야 황제의 침궁이 나온다. 정전과 침궁은 담장 안쪽으로 키 큰 나무가 울창하다. 왕이 여기에서

1년에 2번이나 잘까 말까 한데 왜 담장이 이렇게 많을까!



제궁



제궁 정전 앞에 있는 석정전

제궁 담장과 해자

제궁정전은 황제가 제를 올리기 전에 목욕하고 사전 의식을 행하는 곳이다. 백옥 기단 위에 5칸 건물이며 붉은 벽, 기둥과 공포, 그리고 우진각 지붕에 청기와다.



정전내부

정전좌형

제궁에서 황제가 하는 의식은 이렇다. 제궁에 도착한 저녁에 황제는 먼저 석정전에 가서 동인 상을 놓고 절을 해야 한다. 동인 상은 세분의 것이 있는데 당나라 시대 유명한 재상인 위징과 명대의 악관 냉겸, 그리고 태감인 강병이 그들인데 강정하여 아부하지 않고, 올바른 말을 직간하여 세인의 칭송을 받은 신하들이다. 그 동인 상은 검은 제복을 입고 옥대를 허리에 두르고 재계 패를 들고 있다. 거기에는 망상을 하지 말고 잡념을 버리라고 쓰였다. 모든 제왕들

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운명은 전혀 달랐을 것인데! 정전 안에는 정청 의자에 황제(밀납)가 앉아있고 그 좌우에 황제의 위패를 모셨다.

제궁의 침궁은 정전 뒤에 아름다운 화단과 정원수에 둘러싸인 5칸 짜리 집이다. 여기서 황제가 제례기간 3일 밤낮을 머물러야 하는데 실제로는 청대 옹정제 이후 황제가 머문 예가 없었다고 한다. 그 3일을 참지 못하였으니 천제가 노할 수밖에! 그래서 신하들이 자금성에 별도 제궁을 두어 거기서 절차를 밟았다. 그러다가 제례일 전날 밤중에 천단 제궁에 가 제사 지내고 새벽에 환궁한다. 결국 황제는 몇 시간도 제궁에 머물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침궁 내부 시설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머물 마음이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

종루는 청대 건륭제(1736-1795) 때 건립한 것이다. 그 안에 태화종이 있는데 녹이설어얇은 초록색이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고 제궁을 나오면 종이 울리고 제단에 올라가면 종이 멈춘다. 제사가 끝나면 다시 울리고 제궁을 떠나면 종소리도 멈추었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바로 저 태화종이다.

7. 맺는말

고대 이집트에선 파라오가 죽어서 신이 된다는 종교관으로,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대리자로 마호메트는 알라 신으로 종교공동체를 만들어 세계를 제패했다. 중국 황제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하늘을 천신으로 모시고 스스로 그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나라 왕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두들 하늘을 의지했다.

중국에서는 하늘에 제사지낸 그 당시의 기념물이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다. 공산당 문화혁명 같은 근대사의 그런 질곡에도 말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다. 옛 문화를 복원하고 그 의미를 살려서 오늘 젊은이들의 그리고 선대의 좋은 업적을 되새겨 산교육에 응용해야 할 것이다.